

## 한국 여대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복식문양 선호 특성

남 기 선 · 한 명 숙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의류학전공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식문양의 이미지 차원이 어떠한 구조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복식스타일의 문양을 파악하고, 또한 그러한 선천적인 성격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복식 문양의 디자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였다.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의 복식문양이미지의 차원을 규명하고자 하였고,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우리나라 여자대학생들의 복식문양 이미지 인식 및 선호경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는 2002년 6월 19일에서 7월 10일에 걸쳐 서울과 대전, 그리고 용인, 수원, 성남 등 경기도 지역의 우리나라 여자대학생 56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로는 성격유형의 측정을 위하여 한국 MBTI연구소의 MBTI 성격유형검사 한국어판 Form G를 사용하였고, 복식분양 선호경향의 측정도구로는 선행연구에서 참조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문양선호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복식문양 선호 질문지의 자극물 제작을 위해 콜렉션지에 수록된 복식에 나타난 문양을 그 빈도 수에 따라 그룹핑하여 그 순위에 따라 10개의 문양을 대표문양으로 하였으며, 그들은 복합문양, 줄문양, 꽃문양, 체크문양, 기하학문양, 추상·예술적 문양, 식물·나뭇잎문양, 동물문양, 도트문양, 페이스리 문양으로 선정되었다.

복식문양 선호 질문지의 구성은 복식문양 이미지 측정을 위한 의미미분척도, 스타일별 선호 복식문양조사 그리고 복식문양 디자인 선호조사의 총 3개 영역, 23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DOWS 10.0에 의한 요인분석, 기술평균, 일원변량분석,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식문양 이미지의 차원은 크게 기본조형성 차원, 고급성 차원, 독특성 차원 그리고 문화성 차원임을 알 수 있었다. 4개의 복식문양 이미지 차원 중 기본조형성 차원이 복식문양 감성 이미지를 평가하는 의미공간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다음으로 고급성 차원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성어휘별 복식문양 이미지 차원 분석결과,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도트문양과 줄문양을 가벼운, 편안한, 깨끗한, 시원한, 단순한 등의 문양이미지로 유사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꽃문양과 페이즐리 문양, 식물·나뭇잎 문양을 고급스러운, 우아한, 멋있는 등의 고급성 차원의 문양이미지로 유사하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추상·예술 문양과 복합문양을 개성있는, 재미있는, 신비로운 등의 독특한 문양이미지로 인식하고 이와 반대로 줄문양은 개성없는, 재미없는, 식상한 등의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기하학문양과 동물문양은 시대·문화적으로는 현대적이면서 공간·문화적으로는 서양적인 느낌을 주는 문양이미지로 지각하여 구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더 세계화된 젊은 세대의 문화적인 취향에 부합하여 선호된 것으로 보이며, 체크문양은 젊음, 새로움과 같은 세대 문화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체 여대생의 일반적인 복식문양 선호경향은 다음과 같다.

문양형태·크기 선호에서 여대생의 절반 이상이 추상적 형태와 사실적 형태중 사실형의 꽃문양을 선호하였고, 꽃문양의 크기에 있어서는 절반 정도의 여대생들이 작은 꽃문양을 선호했고 도트문양의 형태 중 팬시도트를 가장 선호하였다. 줄문양의 형태로는 가로, 세로, 사선 줄문양 중 여대생의 65.5%인 368명이 세로 줄문양을 가장 선호하여 2002 S/S 유행경향인 작은 꽃문양과 줄문양의 경향과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즉, 여대생들은 복식문양의 형태를 선택할 때, 유행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문양구성에서 여대생들은 옷 전체가 줄문양인 구성과 줄문양이 약간 가미되어 있는 구성을 비슷하게 선호하였고 절반 이상의 여대생은 칼라나 소매에 식물·나뭇잎 문양이 약간 있는 구성을 옷 전체가 식물·나뭇잎 문양으로 된 구성보다 더 선호하여 이로 볼 때에 문양의 구성에 대한 선호가 복식문양의 종류에 따라서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색상조화, 색조선호는 복합문양을 선택할 때 인접색 조화를 반대색 조화보다 더 선호하였고, 추상·예술문양은 밝은 색조를 선명한, 어두운 색조와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선호했으며, 동물문양과 기하학 문양은 모두 선명한 색조를 선호하였다.

넷째, 성격유형에 따른 복식문양이미지 인식은 10개 대표문양 가운데 동물문양, 도트문양, 페이즐리 문양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감각·직관유형 중 외향·직관형은 동물문양을 고급성과 독특성 차원에서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외향·감각형은 페이즐리 문양을 기본조형성 차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감정유형 중에는 외향·감정형이 동물문양을 고급성 차원에서, 내향·감정유형은 도트문양을 기본조형성 차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격유형별 스타일에 대한 복식문양 선호경향 분석결과, 드레시, 캐주얼, 콤포트 스타일의 3가지 복식스타일 가운데 콤포트한 셔츠 스타일에 대하여 감각·직관유형, 사고·감정유형, 기능유형, 기질유형 즉, 모든 성격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섯째, 성격유형별 복식문양의 형태·크기·색상·색조·색상조화·구성에 대한 복식문양 선호경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각·직관유형에서는 복합문양의 색상조화에서 성격유형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보여주었고, 꽃문양과 줄문양 형태 선호에서는 성격유형별 차이가 없었다. 사고·감정유형에서는 꽃문양의 색조, 줄문양의 구성 선호에서만 성격유형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동물문양의 색조 선호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기능유형에서는 꽃문양과 도트문양의 형태, 식물·나뭇잎의 구성, 기하학문양의 색조 선호에서만 성격유형별 차이를 나타냈다. 기질유형에서는 식물·나뭇잎 문양의 구성과 기하학 문양의 색조선호 그리고, 꽃문양의 크기에 대하여 성격유형별 차이를 나타내었고, 꽃문양의 형태에 대하여는 성격유형별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여자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과 복식문양 선호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결과를 일반화함에 다소의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대략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간주할 때, MBTI 선호경향인 외향형/내향형, 판단형/인식형, 감각형/직관형, 사고형/감정형 가운데 연구대상자 562명중 감각형이 73.8%인 415명, 직관형은 26.2%인 147명으로 대부분이 감각형의 성격유형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감각형의 성격유형에 따른 여대생들의 복식문양 선호경향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식의 문양은 개인의 성격특성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인 동시에 자신의 성격유형에 따라서 복식의 문양을 보고, 느끼고, 선호하게 되며, 복식에서 문양은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